

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

VIP 리포트

■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과 육식녀
: 20-30 세대의 결혼관에 대한 인식

발행인 : 김 주 현
편집주간 : 한 상 완
편집위원 : 주 원, 장후석, 백흥기
발행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
Homepage. <http://www.hri.co.kr>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-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.
-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(02-2072-6245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과 육식녀

: 20-30 세대의 결혼관에 대한 인식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Executive Summary | i |
| 1. 결혼을 미루는 20-30세대 | 1 |
| 2. 한국의 초식남과 육식녀 | 4 |
| 3.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과 육식녀 | 7 |
| 4. 시사점 | 19 |
| 【별첨】 | 21 |
| 【HRI 경제 통계】 | 22 |

| 결혼을 미루는 20-30세대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꾸준히 하락하여 2005년 44만 명 수준까지 하락했으며, 합계출산율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름 - 이는 최근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에 부정적인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- 일본도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데 초식남에 의한 만혼·비혼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므로, 한국의 초식남 분석을 기본으로 한 청년들의 결혼관에 대한 인식 조사 필요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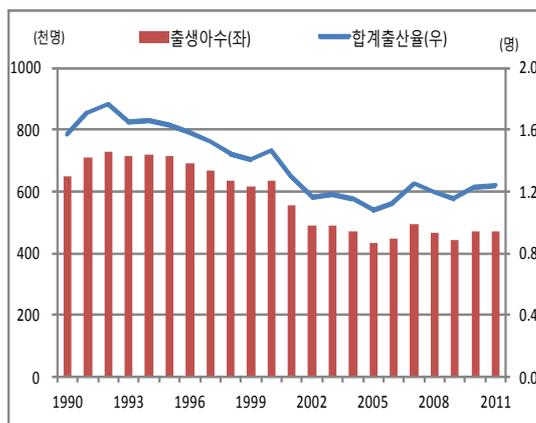
|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·육식녀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한국의 초식남 육식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식남 성향을 보이는 한국 남자는 미혼 남성 중 43.1%임(일본 71.5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초식남화 되는 이유는 일·업무에 지쳐서(40.1%), 경제적 여유 없어서(16.8%) - 육식녀 성향을 보이는 한국 여자는 미혼 여성 중 33.8%임(일본 37.7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육식녀화 되는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(59.5%), 나에 대한 자신감(34.2%) |
|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 육식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결혼 결정 요인) 남자는 배우자의 성격, 여자는 직업·연봉 우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초식남들은 여자 배우자의 성격보다는 직업·연봉을 우선시하고, 육식녀의 경우 비육식녀에 비해 학력, 상대집안 경제력을 우선하는 여자가 많음 - (결혼 꺼리는 이유) 남자는 신혼집 장만, 여자는 육아문제 때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초식남도 신혼집 장만이 가장 큰 문제지만, 비초식남에 비해 자유로운 독신 삶 영위나 육아문제 등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음 · 육식녀는 비육식녀에 비해 주택 구입 등의 결혼 자금 문제에 민감한 편 - (만혼·비혼 우려) 남성(50.7%)보다 여성(38.9%)의 우려가 적은 편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비초식남(46.1%)에 비해 초식남(56.7%)의 우려가 큼 - (결혼 준비 비용) 남자는 부모 지원을 받 이상, 여자는 일부부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초식남은 비초식남에 비해 부모 지원을 더 예상하고 있으며, 신혼집 구입 비용의 남녀 배분도 여자에 좀 더 의존 |
| 미혼남녀의 결혼 조건 인식 차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신혼집 기준) 최소한 20평형대 아파트 전세는 되어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세 선호(여자 73.5%, 남자 66.2%), 20평형대(여자 71.7%, 남자 63.5%) - (결혼 비용 마련 기간) 취업 후 평균 5년 이상은 모아야 결혼 자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모 지원분이나 은행대출분을 제외하고도 남자 약 5.6년, 여자 약 5.2년 - (배우자 연봉 기준) 여자는 최소 3700만원, 남자는 2600만원 원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소기업 대출 초임 수준이 1600-2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편 |

| 시사점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국의 초식남과 육식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마련해야 하고, 이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함 ② 남자들이 과도한 직장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 결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혼집 마련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 지원 대책 마련 요구 |

1. 결혼을 미루는 20-30세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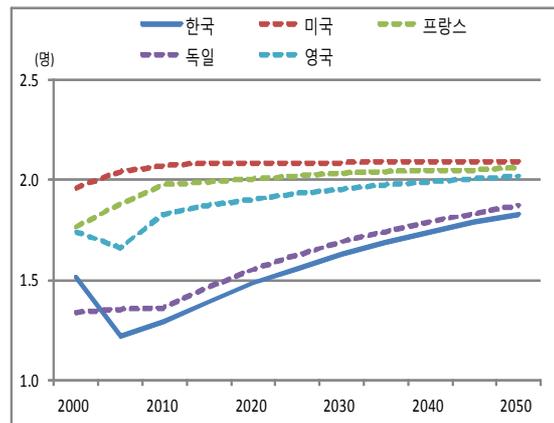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92년 약 73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 44만 명 수준까지 떨어짐
 -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, 여전히 약 50만 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
-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 전망 역시 한국의 경우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
 -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명을 넘어섰고, 프랑스는 2020년 내외, 영국 역시 2045년을 전후하여 2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
 - 2000년대 초반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았던 독일마저 이미 우리를 추월했으나, 한국은 2050년에도 1.8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
- 이러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는 청년층의 결혼 지연 현상과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

<한국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>



자료 : 통계청
 주 :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

<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전망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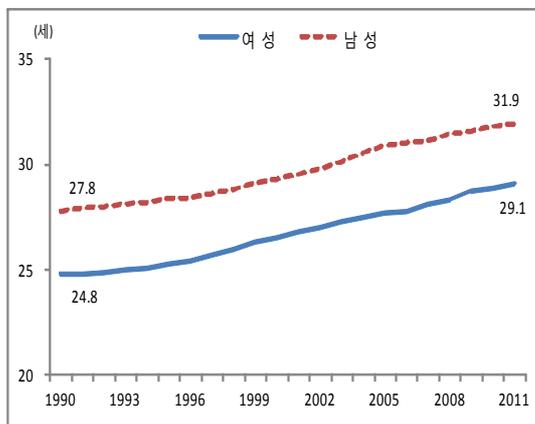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OECD

○ 한국의 만혼과 비혼 증가

-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 남성과 여성의 결혼 지연인 만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들의 초혼 연령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
 - 남성은 1990년 평균 27.8세였던 초혼 연령이 2011년에는 31.9세로 늘어남
 - 여성 역시 초혼 연령이 1990년 평균 24.8세였으나, 2011년에는 29.1세로 약 20년 만에 약 4세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
- 특히, 미혼 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
 -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인 '반드시 해야 한다'와 '하는 편이 좋다' 비율이 2009년 69.8%에 비해 2012년 67.5%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
 - 미혼 여성 역시 긍정적 응답이 줄어들면서 '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'라는 비율이 2009년 31.8%에서 2012년 37.2%로 증가했음
-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관 변화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결혼과 출산율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

<우리나라 남녀의 초혼 연령 추이>



자료 : 통계청

<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 응답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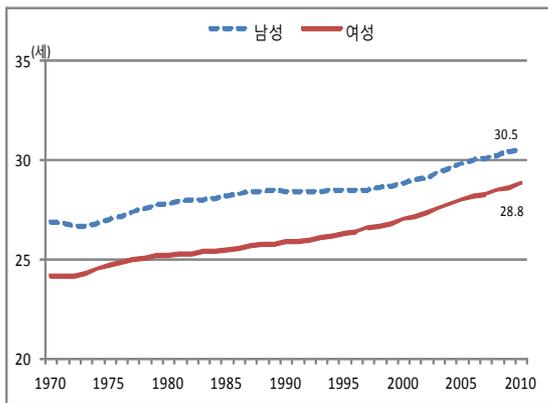
| | 미혼남성(%) | | 미혼여성(%)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| 2009 | 2012 | 2009 | 2012 |
| 반드시해야한다 | 23.4 | 25.8 | 16.9 | 13.3 |
| 하는편이 좋다 | 46.4 | 41.7 | 46.3 | 43.4 |
| 해도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| 25.1 | 26.5 | 31.8 | 37.2 |
| 하지않는게 낫다 | 2.4 | 3.4 | 2.8 | 4.4 |
| 모르겠다 | 2.8 | 2.6 | 2.2 | 1.7 |
| 계 | 100 | 100 | 100 | 100 |

자료: 통계청

○ 일본의 출산율 하락과 초식남·육식녀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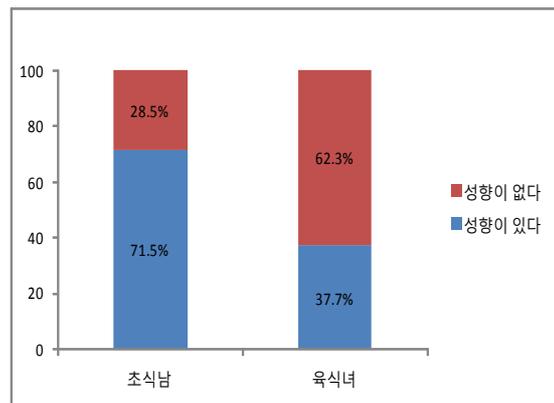
- 일본도 장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었고 2005년에는 1.26명으로 떨어져 출산율 하락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
 - 일본 남녀의 초혼 연령도 꾸준히 증가하여, 2010년 남자는 30.5세, 여자는 28.8세를 나타냄
- 일본 출산율이 하락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1990년대 장기 불황 이후 연애를 기피하는 초식남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미혼과 만혼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음
 - 일본의 경우2) 초식남 성향을 나타내는 남자가 71.5%에 이르고, 육식녀 성향을 나타내는 여자는 37.7% 정도임
-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초식남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, 그들이 청년들의 결혼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서, 저출산과 결혼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

<일본 남녀의 초혼 연령 추이>



자료: 日本 厚生労働省

<일본 남녀의 초식남·육식녀 비율>



자료: 株式會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

- 1) 초식남이란, 후카자와 마키(深澤真紀)에 따르면, 연애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, 외부 활동보다 그냥 방 안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남자를 의미함. 육식녀는 연애에 적극적이고 고백받기보다 고백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여자를 의미함
- 2) 株式會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가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20-40대 남녀 139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결과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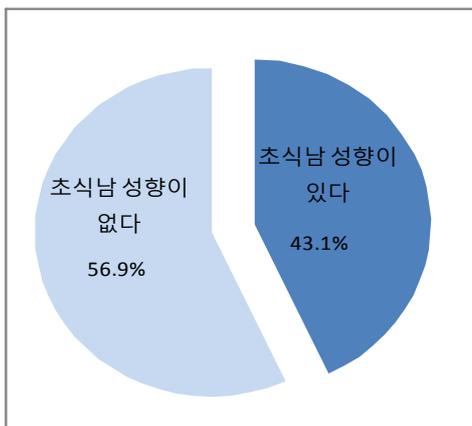
2. 한국의 초식남과 육식녀³⁾

1) 한국의 초식남

○ 국내 초식남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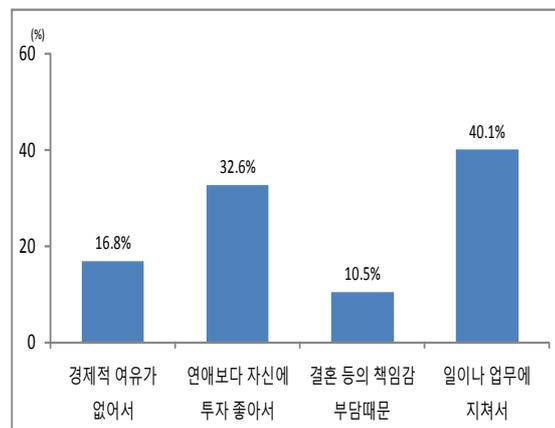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미혼 남성 10명 중 4명 이상은 자신을 초식남 성향이 있는 남자라고 인식하고 있음
 - ‘자신의 성향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초식남 또는 초식남 성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남자가 43.1%임
 -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남성상이 지배하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, 자신을 초식남 성향으로 이해하는 남자가 의외로 많은 편임
- 다만, 자신을 완전한 초식남이라고 확답하는 남자의 경우 일본은 18.4%인데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 3.1%에 불과함
 - 완전한 초식남 비율이 한국에서는 아직 적은 규모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최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증가 가능성도 높은 편임
 - 특히, 현재 초식남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약 40% 정도이므로, 한국 내 완전한 초식남 증가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추정됨

<미혼 남자의 초식남 비율>



주)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7월 설문조사

<초식남화 되는 이유>



3) ‘청년들의 결혼관에 대한 인식 조사’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 간 조사하였다. 전화설문으로 95%신뢰수준에서 최대오차 범위는 ±3.09%이다.

○ 초식남화 되는 이유는 치열한 경쟁과 경제적 원인 때문

- 우리나라 남자들이 초식남화되는 이유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
 - 미혼 남자의 40.1%는 자신의 일이나 업무 때문에 초식남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여,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취업준비생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등이 연애할 시간적 여유조차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
 - 또한,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초식남 성향을 보인다는 남자들도 16.8%나 되어 최근 경기 침체 역시 남자들의 초식남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
- 한편, 유약하면서 자기애가 강한 남자들이 늘어난 것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초식남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임
 - 미혼 남자의 32.6%는 연애보다 자기 자신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, 자기애가 강한 남자들이 늘어난 것도 초식남이 많아지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추정됨
 - 또한, 결혼 등의 책임감에 대한 부담을 초식남 성향을 보인다는 남자들도 10.5%나 되어 남자들이 전통적인 결혼 가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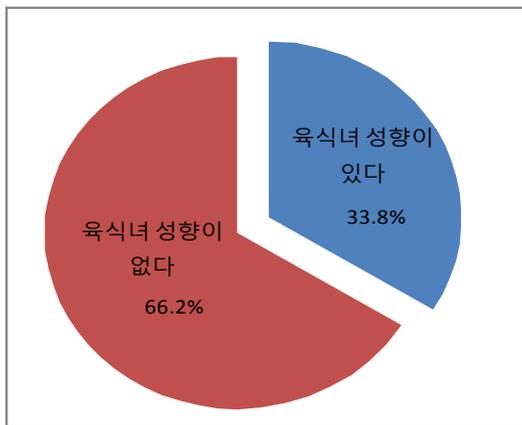
2) 한국의 육식녀

○ 국내 육식녀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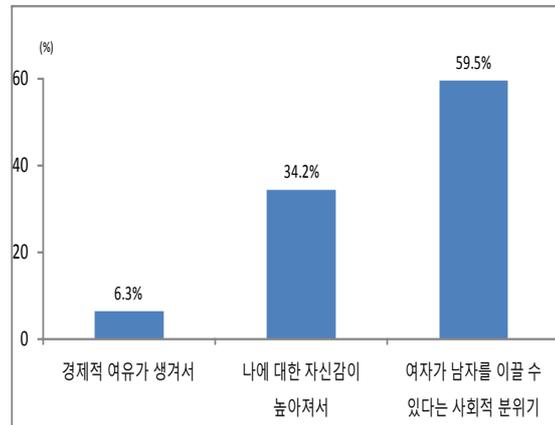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미혼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은 자신을 육식녀 성향이 있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있음
 - ‘자신의 성향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전체 미혼 여성의 33.8%가 자신은 육식녀 성향을 보인다고 응답함

- 한국의 경우 초식남과 달리 육식녀 성향을 보이는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함
- 일본에서도 육식녀가 40%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육식녀화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추정됨
- 여성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남성들의 상대적인 경제적 위축으로 인해 여성의 육식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

<미혼 여성의 육식녀 비율>



<육식녀화 되는 이유>



○ 육식녀화 되는 이유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 때문

- 우리나라 여자들이 육식녀화되는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된 여성들의 권익 신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
- 미혼 여성의 59.5%는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육식녀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여, 여성들의 권익 신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됨
- 또한, 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서라는 응답도 34.2%에 이르는데, 이는 최근 경제적 진출이 활발해진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들도 당당히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와 맞물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것 때문으로 보임

3.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과 육식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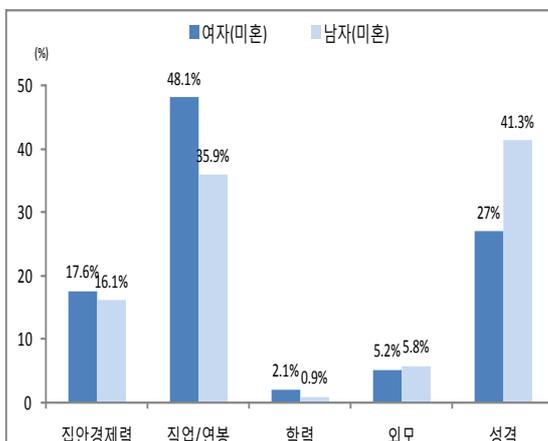
1) 결혼관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차이

① 결혼 결정시 우선 고려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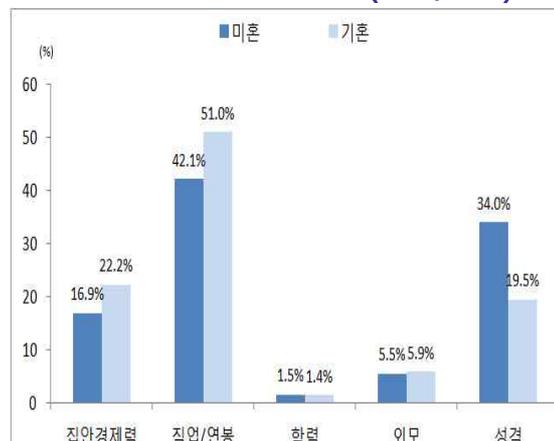
○ 여자는 직업 및 연봉, 남자는 성격 우선

- 남녀가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 역시 상호 차이가 나는데, 여자의 경우 상대방의 직업 및 연봉, 남자는 성격임
 - ‘결혼을 결정할 때 배우자의 어떤 면을 가장 중시한다고 보십니까’라는 질문에 여자는 상대방의 직업 및 연봉이 48.1%로 가장 높음
 - 한편, 남자의 경우 성격이 41.3%로 가장 높고, 그 이외에 직업과 연봉이 35.9%, 상대집안의 경제력 16.1%, 외모 5.8%이며, 학력은 0.9%에 불과함
- 한편, 기혼자가 청년들의 결혼을 바라보는 인식의 경우 미혼인 청년 당사자들과 많은 차이를 나타냄
 - 기혼자들은, 청년들이 직업 및 연봉(51.0%)나 상대집안 경제력(22.2%) 등 경제적 요인을 많이 고려할 것으로 생각하지만, 실제 청년들은 경제적 요인(각각 42.1%와 16.9%)에 대해 보다 덜 고려하고 있는 편임

<결혼 결정의 우선 요인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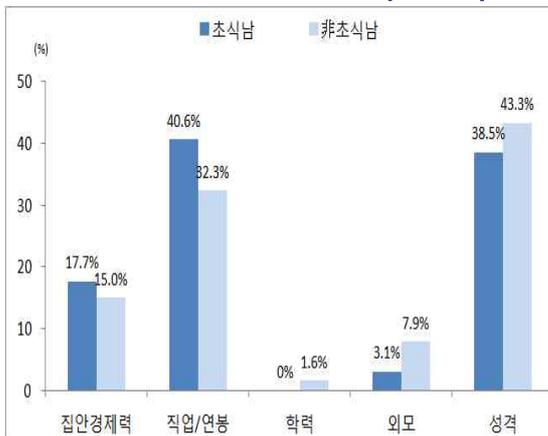
<결혼 결정의 우선 요인(미혼/기혼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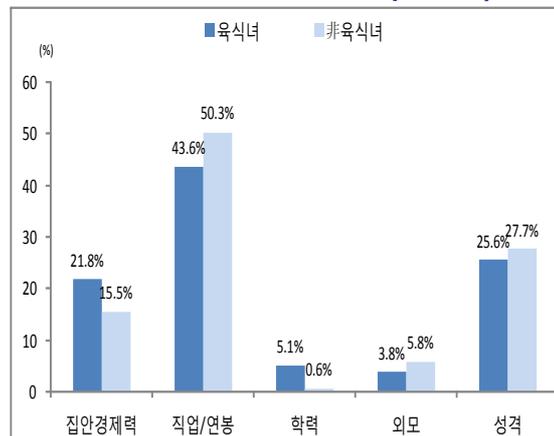
○ 초식남과 非초식남, 육식녀와 非육식녀의 인식 차이

- 미혼 남자를 초식남과 非초식남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결혼 결정 우선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으며, 육식녀와 非육식녀 사이에서도 인식 차이가 발생함
- 초식남 성향을 지닌 남자들의 경우 非초식남에 비해 성격보다는 오히려 직업 및 연봉을 결혼 결정의 우선 요인으로 선택함
 - 非초식남이 상대방의 성격(43.3%)을 직업 및 연봉(32.3%)보다 우선 고려하는 것에 비해 초식남의 경우 상대방의 직업 및 연봉(40.6%)을 성격(38.5%)보다 중요하게 생각함
 -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상대방의 성격을 직업 및 연봉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며 초식남의 인식이 기존 남자들의 인식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
- 육식녀 성향을 지닌 여자들의 경우 非육식녀에 비해 직업 및 연봉을 덜 중요하게 생각함
 - 육식녀의 경우 직업 및 연봉 50.3%인 반면 비육식녀는 43.6%만 중요하다고 생각함

<결혼 결정의 우선 요인(초식남)>



<결혼 결정의 우선 요인(육식녀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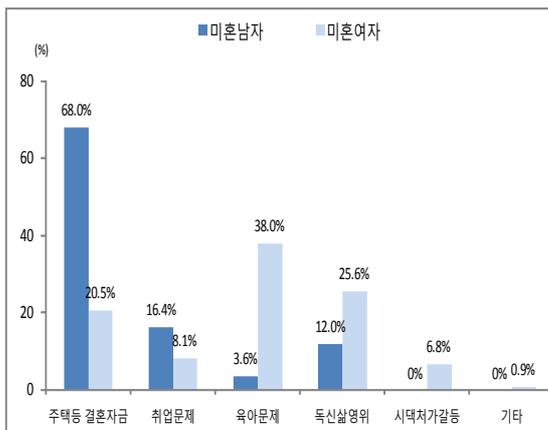


② 결혼을 꺼리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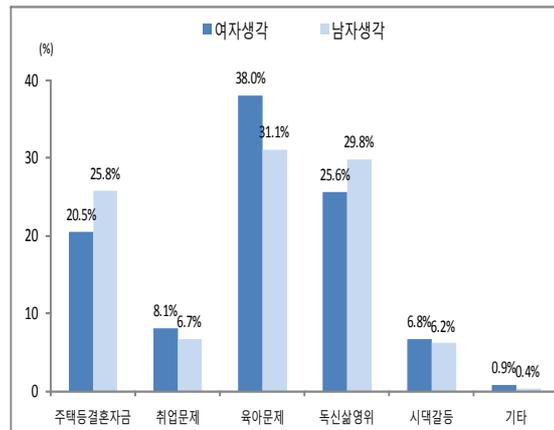
○ 남자는 신혼집 장만 문제, 여자는 육아 문제 때문

- 20-30 세대가 결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남자의 경우 신혼집 마련 문제이고, 여자의 경우는 육아 문제임
- ‘결혼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’라는 질문에 남자의 경우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 문제(68.0%), 취업 문제(16.4%), 자유로운 독신의 삶 영위(12.0%) 등의 순서로 응답함
- 반면, 여자의 경우 육아 문제(38.0%)가 가장 큰 요인이며, 자유로운 독신의 삶 영위(25.6%),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 문제(20.5%) 등의 순서이고, 시댁과의 갈등도 6.8%로 나타남

<미혼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>



<여자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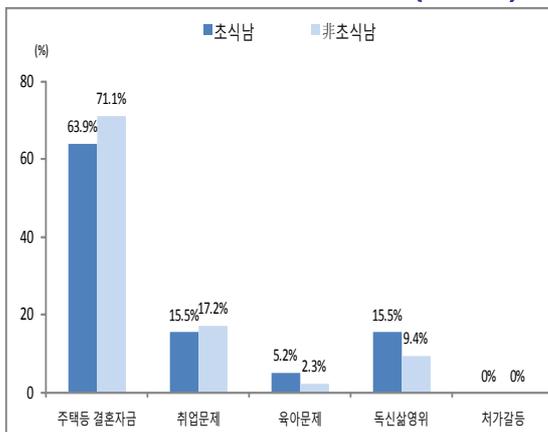
- 한편, 여자들의 결혼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남자와 여자 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함
- 자유로운 독신의 삶 영위보다 육아 문제를 좀 더 크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으나, 남자들의 경우 육아 문제에 대해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추정함
- 반면,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 문제나 자유로운 독신의 삶 영위에 대해서

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자들의 경우 여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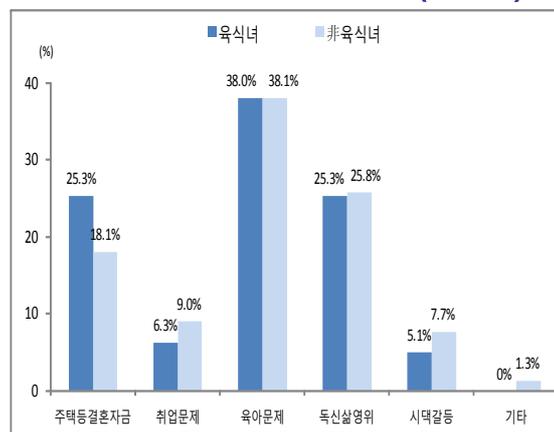
○ 초식남과 非초식남, 육식녀와 非육식녀의 인식 차이

- 초식남 성향을 지닌 남자들의 경우 非초식남에 비해 자유로운 독신 삶을 즐기기 위해 결혼이 꺼려진다는 응답이 많음
 - 非초식남이 주택 구입 등 결혼자금(71.1%) 때문에 결혼을 꺼려하는 데 비해, 초식남도 주택 구입 등 결혼자금(63.9%)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지만 자유로운 독신의 삶(15.5%)도 중요한 이유로 선택하고 있음
 - 또한, 非초식남보다 육아문제(5.2%)를 이유로 드는 초식남도 많은 편임
- 육식녀 성향을 지닌 여자들의 경우 非육식녀에 비해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 문제를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선택함
 -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 문제에 대해 18.1%의 非육식녀가 주요 이유로 선택한 반면, 육식녀는 25.3%가 선택해 육식녀들이 결혼 자금 문제에 좀더 민감하다고 추정됨
 - 또한, 非육식녀보다 시댁갈등 문제(5.1%)에 비해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

<남자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(초식남)>



<여자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(육식녀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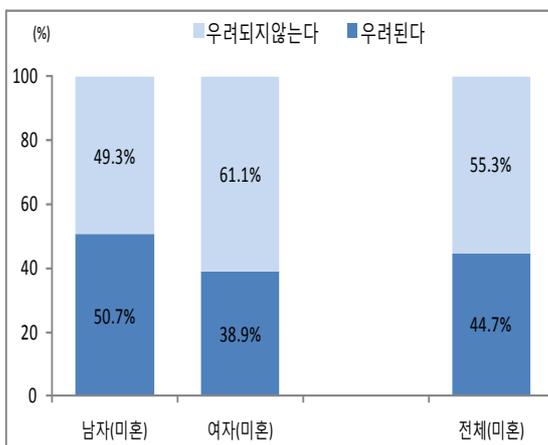


③ 만혼(결혼 지연)과 비혼(결혼하지 않는 현상)에 대한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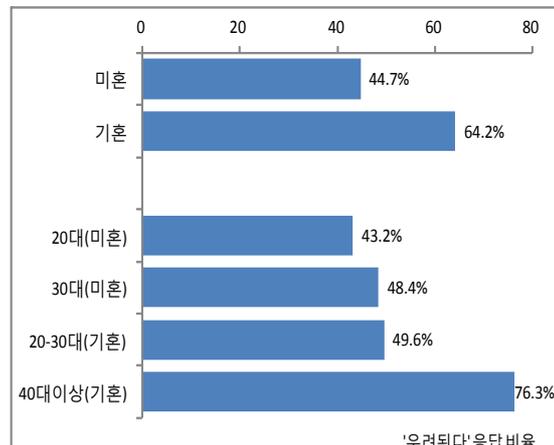
○ 남성보다 여성들의 만혼과 비혼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

-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결혼이 지연되는 만혼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현상에 대해 미혼 여성의 우려는 크지 않는 편임
 - ‘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으며,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’는 질문에 대해 미혼 남녀의 경우 과반수 이상(55.3%)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를 알 수 있음
 - 그러나 이를 남녀별로 구분해보면 상호 차이를 나타내는데, 남자의 경우는 오히려 49.3%가 우려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, 여자들은 61.1%가 우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음
- 결혼관에 대한 차이는 미혼과 기혼 세대간에도 나타나는데, 구체적으로는 연령별 차이에 기인한 것임
 - 기혼 세대의 경우 반대로 전체의 62.4%가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, 청년들의 결혼관에 대해 우려하는 기성세대들의 걱정이 큰 상황임
 - 다만, 기혼 중에서도 40대 이상(76.3%)에 비해 20-30 세대(49.6%)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-30대가 결혼에 대한 우려가 적은 편임

<만혼과 비혼 현상 우려 여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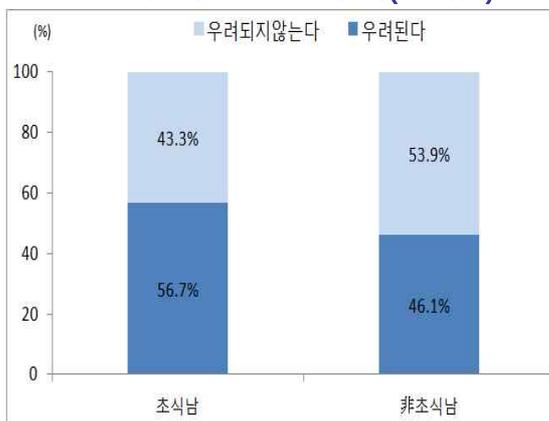
<만혼과 비혼 현상 우려 응답비율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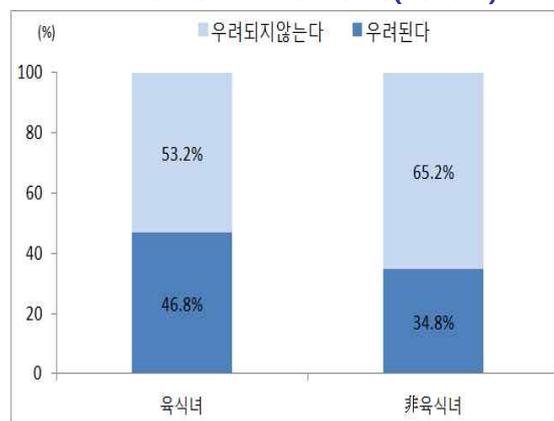
○ 초식남과 非초식남, 육식녀와 非육식녀의 인식 차이

- 초식남 성향을 지닌 남자들의 경우 非초식남에 비해 오히려 현재의 만혼과 비혼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많음
 - 非초식남이 만혼과 비혼 현상을 우려한다는 의견이 46.1%인데 반해, 초식남의 경우 우려한다는 의견이 56.7%에 이름
 - 非초식남은 현재 나타나는 만혼과 비혼 현상을 초식남들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
 - 반면, 초식남의 경우 그들이 초식남 성향을 보이는 이유(일이나 업무에 치여서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등)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애를 못하고 결혼이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됨
- 육식녀 성향을 지닌 여자들의 경우 非육식녀에 비해 현재의 만혼과 비혼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많음
 - 非육식녀가 만혼과 비혼 현상을 우려한다는 의견이 34.8%인데 반해, 육식녀의 경우 우려한다는 의견이 46.8%로 좀 더 많음
 - 전반적으로 非육식녀와 육식녀 모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은 가운데, 非육식녀가 만혼과 비혼 현상을 육식녀들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편임

<만혼과 비혼 현상 우려(초식남)>



<만혼과 비혼 현상 우려(육식녀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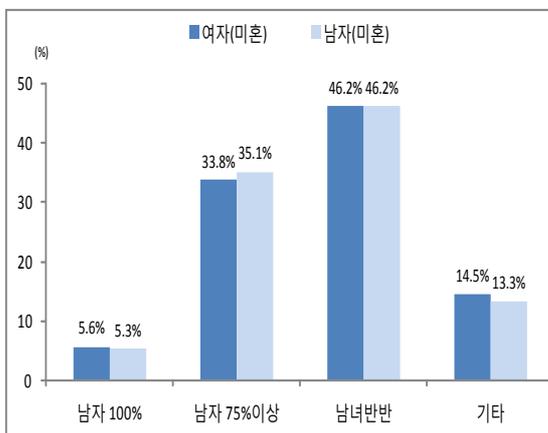


④ 결혼 준비 비용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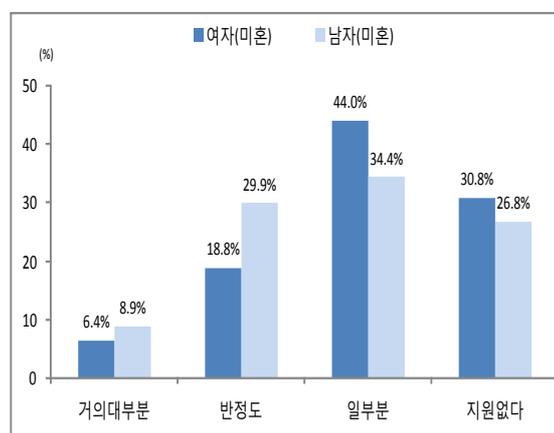
○ 신혼집 구입 비용은 남녀 반반

- 결혼 준비 비용 중 가장 중요한 신혼집 마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
 - ‘신혼집을 구하는 비용에 대한 남녀 간의 배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남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녀 모두 각각 46.2%씩 가장 높으며, 대체로 남자가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함
 - 다만, 신혼집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거의 없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
- 결혼 비용을 부모로부터 반 이상 의존하겠다는 생각을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‘결혼 비용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’라는 반 이상 지원 받겠다는 응답이 남자는 38.8%이고, 여자는 25.2%임
 - 전혀 지원받지 않겠다는 응답의 경우 남자는 26.8%, 여자는 30.8%임
 - 남자가 신혼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, 신혼집 장만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됨

<신혼집 마련 비용 분담 여부>



<결혼 비용의 부모 지원 여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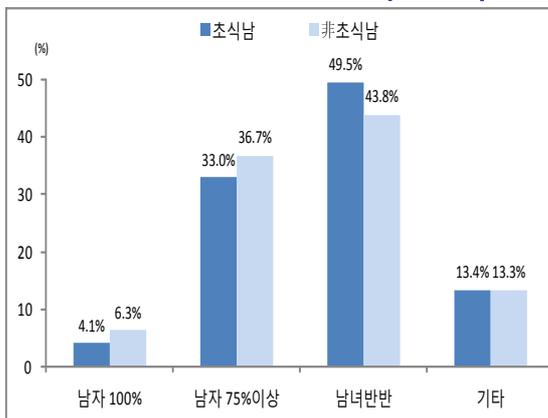


○ 초식남과 非초식남, 육식녀와 非육식녀의 인식 차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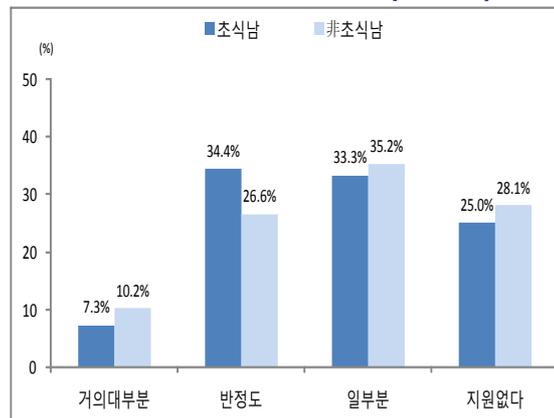
- 초식남 성향을 지닌 남자들의 경우 非초식남에 비해 신혼집 마련 비용을 본인들이 덜 부담하려는 경향을 보임
 - 신혼집 마련 비용을 남자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非초식남은 43.0%인데 반해, 초식남은 37.1%임
 - 남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非초식남 43.8%, 초식남 49.5%로 나타남
 - 초식남이 비초식남에 비해 신혼집은 남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- 결혼 비용의 부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초식남이 非초식남에 비해 부모로부터 좀 더 많은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 편임
 - 결혼 마련의 부모 지원을 반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에 대해 非초식남은 36.8%인데 반해, 초식남은 41.7%임
 -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非초식남 28.1%, 초식남 25.0%로 나타남
 - 초식남이 비초식남에 비해 결혼에 대한 부모 의존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

<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(초식남)>



<결혼 비용의 부모 지원(초식남)>



2) 결혼 조건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

○ (신혼집 기준) 최소한 20평형대의 아파트 전세는 되어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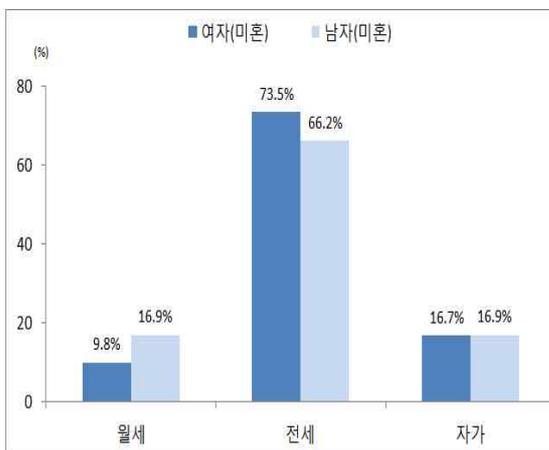
- 남녀 모두 신혼집이 최소한 전세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
 - 최소한 전세는 되어야 한다는 여자는 73.5%, 남자는 66.2%에 이룸
 - 자가여야 한다는 응답도 여자 16.7%, 남자 16.9%나 되는 반면, 월세면 충분하다는 의견은 여자 9.8%, 남자 16.9%임

- 신혼집의 주거 형태도 최소한 아파트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
 - 아파트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자 70.9%, 남자 59.1%로 가장 선호됨
 - 다세대/연립은 여자 13.5%, 남자 16.4%, 원룸은 여자 10.9%, 남자 16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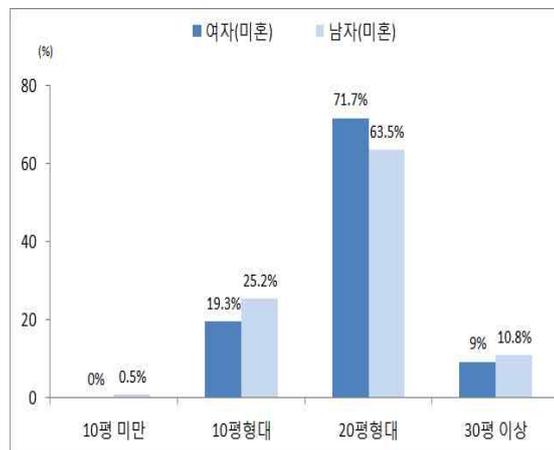
- 주거 규모는 최소한 20평형대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
 - 최소한 20평형대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자 71.7%, 남자 63.5%임
 - 30평 이상도 여자 9.0%, 남자 10.8%인 반면, 10평형대 이하는 여자 19.3%, 남자 25.7%임

- 남녀가 신혼집 선호에 대해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, 대체로 남자가 신혼집에 대해서는 여자보다 좀 더 관대한 편임

<미혼이 원하는 최소한의 신혼집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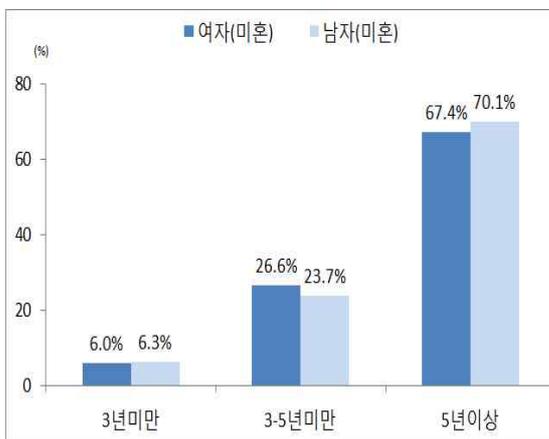
<미혼이 원하는 최소 신혼집 규모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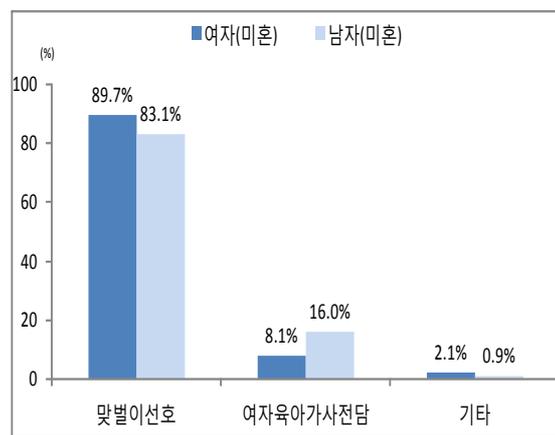
○ (결혼 비용 마련 기간) 비용 마련 기간 평균 약 5년, 맞벌이 선호

-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취업 후 평균 약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남녀 간의 인식 차이는 별로 없음
 - ‘부모 지원과 은행대출분을 제외하고,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마련하려면 취업후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 남자는 약 70.1%이고, 여자의 경우 67.4%임
 - 3년 미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남자는 6.3%, 여자는 6.0%에 불과하며, 3-5년 미만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 남자는 23.7%, 여자는 26.6%임
- 맞벌이에 대한 선호도가 남녀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‘맞벌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맞벌이를 선호한다는 남자는 83.1%이고, 여자의 경우 89.7%임
 - 여자는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16.0%, 여자는 8.1%로 나타남
 - 전반적인 생활 비용 상승으로 맞벌이에 대한 의견이 많은 가운데, 남자의 경우 여자가 육아나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존재함

<미혼 남녀가 예상하는 결혼 비용 마련 기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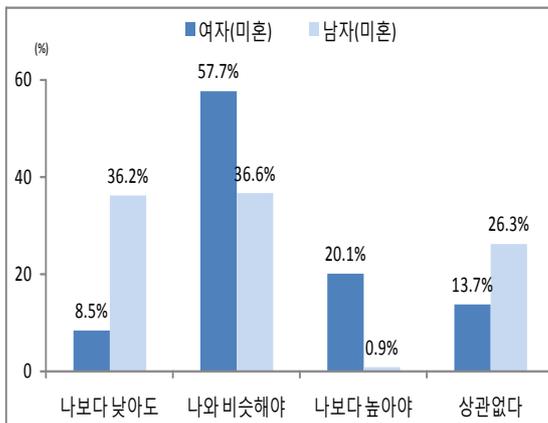
<미혼 남녀의 맞벌이 선호 여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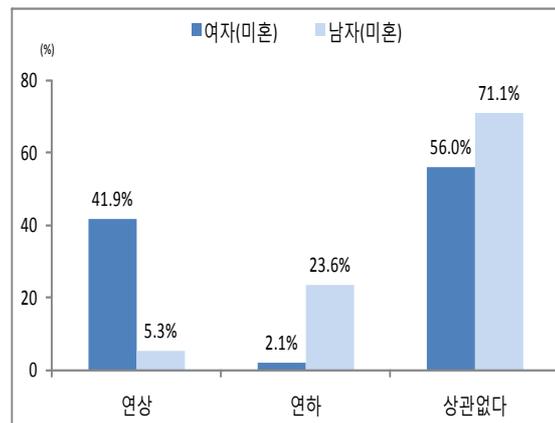
○ (배우자 학력 및 나이) 학력은 비슷해야, 나이는 상관없다

- 결혼 상대방의 학력에 대해서는 나와 비슷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으며, 남자는 여자보다 상관없다는 의견도 많은 편임
 - ‘배우자의 학력은 최소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여자의 경우 적어도 나와 비슷해야 한다 57.7%, 나보다 높아야 한다 20.1%, 상관없다 13.7%, 나보다 낮아도 된다 8.5% 순으로 나타남
 - 남자의 경우 적어도 나와 비슷해야 한다 36.6%, 나보다 낮아도 된다 36.2%, 상관없다 26.3%, 나보다 높아야 한다 0.9% 순으로 나타남
- 결혼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의견이 대체로 많으며, 남자는 연하 선호, 여자는 연상 선호 의견도 많은 편임
 - ‘배우자의 나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여자의 경우 연상이나 연하 모두 상관없다 56.0%, 연상이 좋다 41.9%, 연하가 좋다 2.1% 순으로 나타남
 - 남자의 경우 연상이나 연하 모두 상관없다 71.1%, 연하가 좋다 23.6%, 연상이 좋다 5.3% 순으로 나타남

<미혼 남녀가 원하는 결혼 상대방의 최소 학력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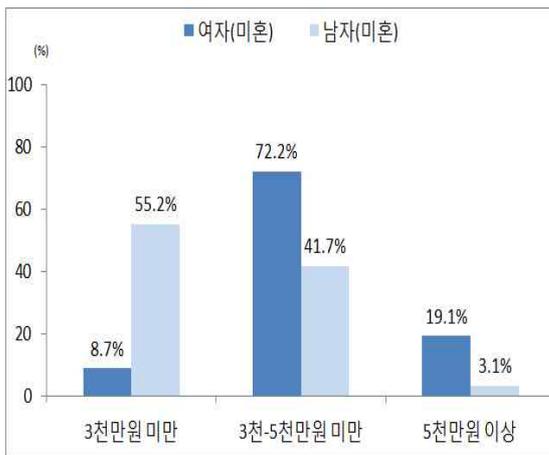
<미혼 남녀가 원하는 결혼 상대방의 적정 나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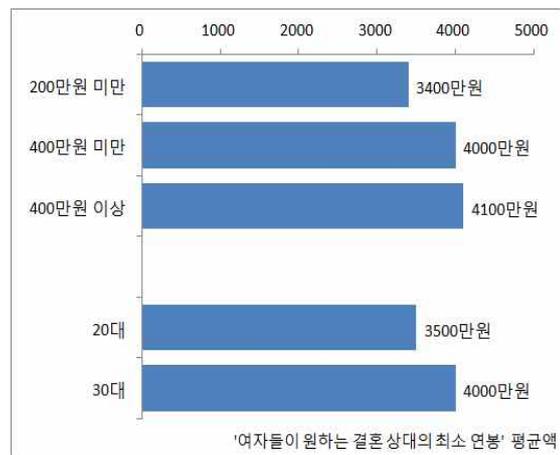
○ (배우자 연봉 수준) 남자는 최소 2600만원, 여자는 최소 3700만원을 원해

- 남자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결혼 상대방에게 최소 2600만원, 여자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결혼 상대방에게 최소 3700만원을 원하고 있어 남녀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
 - '배우자의 연봉은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'라는 질문에 최소한 3천-5천만원 미만인 여자는 72.2%, 남자는 41.7%임
 - 5천만원 이상은 여자 19.1%, 남자는 3.1%이며, 3천만원 미만에 여자 8.7%, 남자 55.2%로 나타남
- 다만, 현재 중소기업의 대졸초임 수준⁴⁾이 1600만~24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여자들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남자 결혼 상대방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됨

< 미혼 남녀가 원하는 결혼 상대방의 최소 연봉 수준 >



< 여자가 결혼 상대방에게 원하는 최소 연봉 평균액 >



4)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인 이상 중소기업 500곳 상대 조사

4. 시사점

- 첫째, 한국의 초식남과 육식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마련해야 하고, 이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함
 - 초식남과 육식녀 현상은 일시적이 아니므로,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
 - 초식남을 유발하는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기 침체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초식남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음
 - 따라서, 향후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기 위해서는 초식남은 물론이고 육식녀에 대한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
- 둘째, 남자들이 과도한 직장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
 - 결혼에 문제가 되는 초식남의 경우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 경제 문제 등 주변 환경에 의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
 - 특히, 과도한 업무로 인해 연애할 여력조차 없다는 이유가 크므로, 최근 도입된 대체휴일제와 같이 기업과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휴식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
 - 청년들이 충전할 시간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결혼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
- 셋째, 결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혼집 마련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됨
 - 미혼 남녀의 결혼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신혼집 장만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
 -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

- 신혼집 마련이므로 소극적인 대응은 효과가 미흡하게 됨
- 신혼집 마련을 위해 금융 지원 등 소극적 대책에서 벗어나 신혼집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**HRI**

장후석 연구위원 (chahus@hri.co.kr, 02-2072-6234)

별첨 : 응답자 특성표

| | | 사례수(명) | 비중(%)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전 체 | | (1015) | 100 |
| 결혼유무 | 미 혼 | (459) | 45.2 |
| | 기 혼 | (556) | 54.8 |
| 성별 | 남 자 | (485) | 47.8 |
| | 여 자 | (530) | 52.2 |
| 연령 | 20 대 | (350) | 36.0 |
| | 30 대 | (350) | 36.0 |
| | 40 대 | (163) | 16.8 |
| | 50대 이상 | (108) | 11.1 |
| 직업 | 정규직직장인 | (579) | 57.0 |
| | 비정규직장인 | (112) | 11.0 |
| | 자 영 업 | (108) | 10.6 |
| | 학 생 | (116) | 11.4 |
| | 무 직 | (20) | 2.0 |
| | 주 부 | (76) | 7.5 |
| | 농 임 어 업 | (4) | 0.4 |
| 소득수준 | 200만원 미만 | (386) | 38.4 |
| | 400만원 미만 | (427) | 42.5 |
| | 600만원 미만 | (126) | 12.5 |
| | 600만원 이상 | (66) | 6.6 |
| 학력 | 고등학교이하 | (171) | 16.9 |
| | 대학 재학 | (123) | 12.1 |
| | 대 졸 | (664) | 65.5 |
| | 대학원 이상 | (56) | 5.5 |
| | 서 울 | (209) | 20.6 |
| 지역 | 인천 / 경기 | (276) | 27.2 |
| | 대전 / 충청 | (103) | 10.2 |
| | 광주/전라/제주 | (118) | 11.6 |
| | 부산/울산/경남 | (167) | 16.5 |
| | 대구/경북/강원 | (141) | 13.9 |

HRI 경제 통계

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

<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>

| 구 분 | | 2011 연간 | 2012 | | | | | 2013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| | 1/4 | 2/4 | 3/4 | 4/4 | 연간 | 1/4 | 2/4 | 연간(E) | |
| 국민계정 | 경제성장률(%) | 3.7 | 2.8 | 2.4 | 1.6 | 1.5 | 2.0 | 1.5 | 2.3 | 2.6 | |
| | 민간소비(%) | 2.4 | 1.3 | 1.0 | 1.7 | 2.7 | 1.7 | 1.5 | 1.7 | 2.1 | |
| | 건설투자(%) | -4.7 | -0.4 | -3.1 | -0.3 | -4.2 | -2.2 | 2.4 | 7.1 | 2.5 | |
| | 설비투자(%) | 3.6 | 8.8 | -3.5 | -6.9 | -5.2 | -1.9 | -11.9 | -5.1 | 1.0 | |
| 대외거래 | 통관기준 | 경상수지(억 \$) | 261 | 26 | 112 | 146 | 148 | 431 | 100 | 198 | 395 |
| | | 무역수지(억 \$) | 308 | 12 | 97 | 75 | 99 | 283 | 57 | 143 | 270 |
| | 수출(억 \$) | 증감률(%) | 5,552 | 1,348 | 1,401 | 1,331 | 1,398 | 5,479 | 1,354 | 1,413 | 5,589 |
| | | 증감률(%) | (19.0) | (2.9) | (-1.7) | (-5.8) | (-0.4) | (-1.3) | (0.4) | (0.8) | (2.0) |
| | 수입(억 \$) | 증감률(%) | 5,244 | 1,337 | 1,304 | 1,257 | 1,298 | 5,196 | 1,297 | 1,269 | 5,319 |
| | | 증감률(%) | (23.3) | (7.8) | (-2.9) | (-6.9) | (-1.1) | (-0.9) | (-3.0) | (-2.7) | (2.4) |
| 소비자물가 상승률(%) | | 4.0 | 3.0 | 2.4 | 1.6 | 1.7 | 2.2 | 1.4 | 1.1 | 1.6 | |
| 실업률(%) | | 3.4 | 3.8 | 3.3 | 3.0 | 2.8 | 3.2 | 3.6 | 3.1 | 3.3 | |
| 원/달러 환율(평균, 원) | | 1,108 | 1,131 | 1,152 | 1,133 | 1,090 | 1,127 | 1,085 | 1,123 | 1,105 | |

주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